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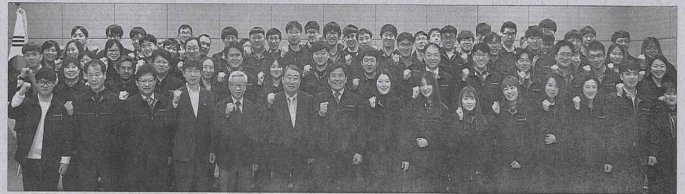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18일 오전 11시 흥천 힐드 로사이컨트리클럽에서 2017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제11회 강원경제인상의 5개 수상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 강원랜드 하이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강원경제인상은 5개 부문(중소기업상·연구개발상·건설혁신상·창업성공상·특별상) 총 상금 7,000만원(대상 3,000만원·4개 부문 각 1,000만원) 규모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강원경제인상 수상자

다.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국내에서 도 드문, 최고 규모의 경제인상이다. 도내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개월에 걸친 1,2차 심사를 통해 경영지표, 신사업 발굴,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수질환경 보전 물산업 선도 **창조기업상** 한허희(주)뉴보텍 대표

(주)뉴보텍(대표:한허희)은 원주 등 전국 5개 사업장을 두고 상하수도 배관자재, 빗물 저류조, 비골작 상하수도 관 생산공법(SPR) 등 상하수도 관련 토털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질환경전문기업이다. 1990년 설립 후 '국토 환경 보전활동'을 시범으로 세우고, 전 매출 400억원대, 직원 수 120명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최초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고 비골작 상하수도관 보수공사 등으로 제품을 다각화해 '물산업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재산권을 159건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일하기좋은기업(지식경제부), 2012년

백년기업(강원도), 모범조달업체(조달청), 2013년 10대 최우수특허기업,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환경부)로 선정됐다. 올 7월에는 '화장품 마스크팩 제조사업' 등 생활용품에 대한 신규 사업을 론칭했다. 신규 공장을 준공하면서 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환경사업 부문에서 벗어나 생활용품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강원지역에 본점과 1, 2공장을 두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1사 1촌 협약을 통한 농촌봉사와 후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신하림기자

세계적 백신제조업체 우뚝 **연구개발상** 백영욱(주)유바이오로직스 대표

(주)유바이오로직스(대표:백영욱)는 2010년 설립된 춘천에 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다.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사명으로 세우고 안정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공급사업, 신규 백신 개발, 바이오의약품 위탁 연구-제조(CRMO-Contract Research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다. 유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9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경우 콜레라 백신의 국내 독점기술 이전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비임상 연구, 임상 1상-3상 개발, 상업화를 추진해 왔다. 2015년 12월 경우용 콜

레라 백신 '유비콜'을 세계에서 세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 평가 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6억원을 달성했고, 직원 수는 86명이다. 특히 빌게이츠재단이 후원하는 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비콜 플러스 원재 제조시설을 2년 전 구축했다. 장티푸스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세균 백신을 개발해 2020년 세계적인 백신 제조업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직원 86명 중 70여명이 도내에서 채용됐고, 동춘천산업단지에 공장 시설을 추진 중이다. 신하림기자



지역건설 발전·인력양성 적극

**건설혁신상** 김정섭 신진종합건설(주) 대표 (대표:김정섭)은 토목 건축 종합건설업체로서 국가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공공청사와 수해복구 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5년 창립 초부터 2억원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2003년 100억원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5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해마다 4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해 왔다. 수주한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지역의 자재 사용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강원지역의 건설현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설 분야의 공정관리에 따른 원가 절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3년 한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스템 한옥모형개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며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올 1월에는 한림성신대와 산학협력을 체결,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는 등 건축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활발하게 활동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재규기자

수술용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

**창업성공상** 한준모(주)에이치엔씨지컬 대표 (주)에이치엔씨지컬(대표:한준모)은 외과 '최소침습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회사다. 미국과 일본 등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외과 의료기기의 생산국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초로 수술용 치료제 중 하나인 혈관결찰용클립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2012년 국내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지난해 4월 국내총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국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전망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해 일반인, 전문투자자로부터 3억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2015년 춘천퇴계공단으로 이전 후 지역엔지니어링을 위해 도내 대학, 교외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질의 청년 고용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유재규기자

목재 테크기술 독보적 입지 구축

**특별상** 양홍준(주)백향우드 대표 (주)백향우드(대표:양홍준)는 2006년 창립한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 생산기업이다. '사람 기술 그리고 미래'라는 사훈 아래 전 직원이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특허 및 성능인증 획득과 우수조달제품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춘천지역에서 1, 2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5건의 특허를 등록, 제품 생산의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합성목재는 벤치, 전판대,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 각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테크로드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테크 설치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창출했다. 더불어 건설 조경공사에서는 직접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텝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선 2012년 고용우수기업과 도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올렸다. 2014년에는 강원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시회복기공동모금회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윤종현기자

#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 강원경제, 세계로 미래로

■ 일정 : 2017. 9. 19(화)~ 9. 20(수)  
■ 장소 :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 하이원CC

**강원경제인대상  
창조기업상**



(주)뉴보텍  
대표 한거희

**연구개발상**



(주)유바이오로직스  
대표 백영욱

**건설혁신상**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정섭

**창업성공상**



(주)에이치엔써지컬  
대표 한준모

**특별상**



(주)백향우드  
대표 양흥춘

### 세부 일정

- 1일차 : 9월 19일(화),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 11:00~13:00 - 강원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간담회  
주최 :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
  - 13:30~14:30 - 강원일보 CEO아카데미 수강생 간담회
  - 15:00~15:40 - 개회식 및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창조기업상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 5개 부문
  - 16:00~16:30 - 「강원경제인포럼」 기조연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과 과제”
  - 16:30~17:10 - 주제발표 1 :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 방안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평창올림픽 관광분야 레거시 창출 (허중욱 강원대 관광학과 교수)
  - 17:10~18:10 - 종합토론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  
좌 장 : 구경모 강원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토론자 : 김석중 강원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양민석 도 경제진흥국장, 한중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 18:30~20:00 - 환영만찬
- 2일차 : 9월 20일(수), 하이원호텔 및 CC - 오찬 제공
  - 06:30 (하이원CC) - 강원경제인전선골프대회 티오프 (오후 시상식)
  - 08:00 ~09:10 - 조찬강연 -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원도 중소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숙식, 참가비 무료이며 골프대회 참가비는 자부담입니다. (문의 : 033-258-1340~2)

주최 :  江原日報社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후원 :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강원지역본부  FASHION LANDMARK M  롯데주류



아하! 그렇구나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

**Q**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재인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

**A** 건설업체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입니다.

'관급 자재비'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관급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재비를 도급공사비에서 추후 감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급 자재비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 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 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매출액' 또는 '관련 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관급 자재 금액 부분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급 자재 금액 부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 SOC 예산 축소... 위기의 중소사

##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 목소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에 따라 공공발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까지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막다른 길에 몰린 지방 중소기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내년도 SOC 예산의 대규모 감축에 대응, 주요 협회 관련 협회·단체 등을 구심점으로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분할발주는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공사물량을 지역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 및 금액을 쪼개 발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물량도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려는 것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등을 비롯, 주요 협회·단체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정부의 보완책 마련 등을 예의주시 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와 조달청, 공기업 등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분할발주

내년 SOC 예산 4.4兆나 줄여  
공공공사 물량 급감 불 보듯  
공약사업마저 줄줄이 '제동'  
지역건설사 줄도산 위기 직면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를 건의, 요청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지역업체의 분할발주 요구는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올해는 훨씬 절박하다. 무려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SOC예산이 한꺼번에 삭감된 전례가 없는 데다 수많은 지역 숙원사업은 물론,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추진되던 신규 사업마저 줄줄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체들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한 공식적인 건의와 요청뿐 아니라, 지자체장이나 발주기관,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분할발주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공품질이나 비용부담 등 시공 효율성에 지장이 없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는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들도 분할발주를 포함, 지역 건설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감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SOC예산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 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지역사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대전상의 및 건협 대전시회 등 지역 경제단체와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부 대전 잔류를 포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 및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등 국회의 SOC예산안 증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포함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시도는 물론,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도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d@